

# 공공기관 ‘2만3000명’ 정규직 채용… 취준생 ‘주목’

채용공고 분석 결과 상반기 몰려  
인원 절반 이상 1~3월 사이 뽑아  
1분기 첫번째 채용기관 ‘도로공’  
채용규모 가장 큰 기관 ‘철도공’

올해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만3000명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전망이다. 특히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인 1월~3월 사이 뽑을 계획이어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정규직 채용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채용 문을 연 첫 번째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12일까지 지원접수는 마감한다. 도로공사는 일반과 전문인력 부문으로 나눠 정규직을 채용한다. 일반 공채의 경우 행정직(경영·법정), 기술직(토목·건축·전기·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일정〉

기업명	규모	일정
한국도로공사	250명	01.03~01.12
한국철도공사	1,600명	1월예정
한국수자원공사	228명	2~3월예정
한국전력공사	1,586명	3월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274명	3~4월 예정

자료: 사람인



조경·기계·설비·전산·전자통신)에서 직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이 없으나 공인영어성적 1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술직의 경우 선발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진 면접 및 인성검사, 경영진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인력공채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보보안전문가를 뽑는다. 분야별로 필수자격증을 보유해야하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에 이어 역량면접 및 인성검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가 진행된다. 합격자 근무조건은 월 240만 원 수준으로 일반 및 전문인력 공채 모두 동일하다.

공공기관 중 채용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의 공채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160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인성역량검사,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3월 5일까지 1586명을 선발하는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4월 1274명을 채용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월 중 552명을 채용하는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273명, 3월·9월 예정), 한국도로공사(250명, 1월·7월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252명, 3월), 한국수자원공사(228명, 2~3월 예정), 한전KPS(주)(222명, 3월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250명, 6월), 코레일네트웍스(주)(232명, 3월) 등이 200명 이상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1명, 2월), 한전 KDN(주)(164명, 3월·9월), 한국중부발전(주)(100명,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93명, 3월), 한국공항공사(55명, 3월), 코레일관광개발(주)(120명,

3월) 등이 상반기에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올해 8월과 11월 861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IBK기업은행은 오는 9월 219명을 채용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8~9월경 27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200명, 10월 예정), 한국동서발전(주)(166명, 10월 예정), 신용보증기금(100명, 9월 예정), 신용보증기금(100명, 9월), 한국동서발전(주)(166명, 10월),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533명, 8월·11월) 등이 하반기에 대규모 공채를 진행한다. 이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하반기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

자세한 공공기관 채용일정은 사람인의 ‘공공기관 채용일정’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저소득층 학업우수자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한국장학재단, 최종 217명 첫 실시  
대출원금 30%·이자 총 3.4억 지급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욱)은 ‘2017년도 저소득층 학업우수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지원 사업’을 첫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첫 수혜자는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대학생 중 재단이 최종선발한 217명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 30%

와 이자에 해당하는 총 3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안양욱 이사장은 “정부 재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민간 기부금 등을 융합해 대학생들에게 완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재단이 기부 받은 푸른등대 기부금의 운용수익으로 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 성적 80점 이상인 3~4학년 재학생이다.

푸른등대 기부금은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기부처별 지원 분야에 따라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부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초등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내자”

2018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 예비 신입생들이 화관을 쓰고 서 밝게 웃고 있다.

연일뉴스



1급 장애인 우주연(50) 씨가 부산대에 2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부산대학교

## “20년 전 가르쳐 준 부산대 학생에 감사”

1급 장애인 기부금 200만원 전달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미래에는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급 장애인이 20년 전 야학에서 자신을 가르쳐 준 대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8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해 21일 오후

1급 장애인 우주연(50) 씨가 부산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과 약품 및 항체개발비 지원에 써달라며 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우 씨는 “장애인이 없는 꿈같은 미래가 현실이 됐으면 한다”면서 부산대 생명과학과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우 씨는 이날 발전기금 외에도 올해 1월부터 매달 2만 원씩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산대에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우 씨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20년 전 ‘참배움터’라는 야학에서 부산대 학생을 만나 배움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인연에 뒤늦게나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문을 연 참배움터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부산지역 야학으로, 부산대 인근에서 운영되면서 장애인들에게 문해 교육과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등의 교육을 진행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용수 기자

## 한양대, CES서 ‘스타트업’ 혁신제품 선포

한양대(총장 이명무)는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8(Consumer Technology Show)’에 참가해 한양대 스타트업의 혁신제품과 대학 우수기술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한양대는 지난 2016년부터 CES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 박람회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안경렌즈’, ‘IoT 스마트 화재방지 시스템’ 등 학생·동문 창업자가 개발한 7개 혁신제품과 대학 첨단기

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양대 스타트업관은 테크웨스트 샌즈엑스포관 G홀에 위치한다.

유현오 한양대 창업지원단장은 “스타트업 기업의 CES 참가는 글로벌 시장에 직접 부딪히며 시장성을 검증해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CES와 같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회를 지속 마련해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이상주 전 남가주한인약사협회 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주) 사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 ‘자랑스런 경희인상’ 수상

경희대학교(총장 조인원)는 총동문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경희인상’ 수상자로 이상주 전 남가주한인약사협회 회

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주) 사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상식은 경희대 총동문회가 9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여는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79개 전문대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전문대학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 입학정보박람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박람

회에는 전국 79개 전문대가 참가한다. 대학별 2018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상담과 특성화학과를 소개하고, 현직 진학지도 교사가 1대 1 진로상담도 진행한다.

박람회 기간 중 일부 대학의 경우 현장에서 응시료 없이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박람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입장료는 무료.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수험생은 먼저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오면 도움이 된다”며 “취업 유망전공과 본인 성적으로 진학이 가능한 전공 등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